

#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 밀폐마개속의 고안

어느 상점에서 1년에 한 번씩 손님맞이 행사를 하는 곳이 있었다. 그것은 「1일 점포주」라고 하여, 저명 인사를 데리고 와서 하루동안 상점의 주인이 되어 손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발상이다.

예능계의 사람이 몇십 명 동원되었으므로 그날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별히 「아이디어맨」이란 사람도 초청되었다. 이곳에서는 발명품을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 동안 아이디어 서비스를 하였다. 그 때 가장 많이 팔린 것은 2, 3백원짜리 밀폐마개였다. 하루에 50개 정도나 팔렸다.

이 밀폐마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구입하여 그것을 개량한 것이다.

콜라나 맥주 등이 홈사이즈라고 하여 대형의 병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한 번에 다 마실 수 없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밀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한 번 쓰고 버리는 시대인데도 이런 것이 팔리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물질 부족으로 접어든 오늘날, 이 밀폐마개를 힌트로 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뜻밖에도 관심이 집중되어 큰 히트가 되지 않을까?

로스앤젤레스의 마개는 바깥쪽은 윗부분으로 올라감에 따라 좁아져 있고, 그 속에 연질의 고무패킹이 병 주둥이에 밀착되어 있는데, 그대로 둔다. 다음에 마실 때는 중앙의 구멍으로부터 손가락으로 누르면 고무패킹이 아래

로 내려가므로 이내 벗겨진다는 것이다.

구조는 간단하다. 그러나 더욱 간단하고도 산뜻하며, 사용하기 쉬운 것을 수십 종이나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해도 나사식의 것이다. 마늘절임, 오이절임, 김 등 병에 담아 놓는 것에는 이 나사식의 뚜껑을 한 병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사이dana 콜라의 병에는 나사가 끊어져있지 않다. 따라서 나사뚜껑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나사에 해당하는 것을 병에 손쉽게 장치할 수 없을까?

사실은 위와 같은 코르크마개를 새겨 놓아도 효율이 매우 좋다. 그것과 또 한 가지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의하여 빠지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일어난다. 사실은 로스앤젤레스의 것과 같은 정도의 세기 또는 그 이상이지만 이미지로서는 지나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코르크마개가 잘 빠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조그마한 공리로써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 브러시 주변의 고안

이발소에 가면 머리를 감겨준다. 그리고 브러시로 기분 좋게 빗어준다. 또한 가정에서 머리를 감을 때도 브러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좀처럼 사용하지를 않는다. 그것은 브러시가 자루가 붙어있는 대형이기 때문에 상설 목욕탕이라도 있지 않으면 안되기 때

문이다.

「비누그릇에 들어갈 정도의 브러시가 있다면 언제나 쉽게 사용된다.」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생각한 것이 비누그릇의 뚜껑을 빗모양으로 하는 일이다. 이것이라면 언제나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 안은 실용신안이 되고서도 아직 사업화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틀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경도의 문제에서 난점이 생기지 않을까? 비누그릇을 살 때 과연 머리를 씻을 일을 생각하고서 살까? 이빨이 붙어있으면 도리어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의 브러시는 그러한 걱정을 단번에 씻어주었다.

### 클립 주변의 또 다른 고안

비오는 날이었다. 진귀한 풍경을 보았다. 그것은 우산을 받친 부인이 어린이를 업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이의 얼굴이 뒤쪽을 향하고 있었다.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어린이는 평소 때와 같이 손발을 흔들면서 나의 얼굴을 보고 병긋병긋 웃고 있었다. 어머니의 등과 어린이의 등이 마주 붙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자연적인 것이란 느낌이 들었다. 어린이로부터 본다면 언제나 어머니의 등만 쳐다보는 것보다 뒤쪽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즐거울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동시에 지난날 우리의 어머니들이 어린이의 얼굴을 등쪽으로 향하게 하여 업고 다닌 일이 도리어 이상하게 여겨졌다.

그리하여 재빨리 베이용품 매장으로 달려가

살펴보기로 하였다. 관습이 다르면 다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눈에 띈 것은 베이비서클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나라의 것과 꼭 같았다.

어린이를 재우기 위한 선반이 있다. 거기에 인형이 있다. 그 위에 흰 천에 자수를 해 놓은 타올천이 걸려있다. 다른 점은 하나도 없었다. 이리하여 실망을 하고 있는 동안 뜻밖에 눈에 띈 것은 그 흰 천을 고정시키고 있는 클립이었다.

가슴쪽과 등쪽의 두 곳을 원 안의 그림과 같이 고정시키고 서클 기둥에 부착시켜 놓고 있다.

「과연 이것이 다르구나. 이것이라면 어린이가 침구를 발로 차낸다고 해도, 또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도 침구가 찢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리하여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안심하고 잠을 푹 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세탁물집계와 같은 클립은 이내 벗겨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손으로 잡아보았다. 「과연 잘 되어있구나!」하고 감탄하였다.

한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띠이다. 그리고 한편에는 큰 구멍이 뚫어져 있다. 또 한편에는 돌기가 있다. 따라서 천을 복판에 끼우고서 이 돌기를 구멍 속에 밀어 넣으면 흰 천이 찢어질 때까지 클립에서 떨어져 나오는 일이 없다.

아마 이 띠 모양 클립 하나의 제작비는 천 원 정도로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침구상들의 말이 얼핏 머리에 떠올랐다. <외지에서>

## '92년도분 특허·실용신안

출원공개색인집

출원공고 색인집 발간